

# PEOPLE

2025년 9월 9일 화요일

## 정기섭 주택건설 광주전남도회 기초질서 지키기 챌린지 동참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는 정기섭 회장이 기초질서 지키기 챌린지 마지막 주자로 동참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챌린지는 광주경찰청과 광주시지정경찰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있으며 일상 생활 속에서 교통질서, 생활질서, 서민경제질서 등 3대 기초질서를 지키자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추진됐다.

정기섭 회장은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박재홍 회장의 지명을 받아 참여했다.

정 회장은 "이번 챌린지 캠페인 시 시민들의 기초질서 준수 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태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생활 속 기초질서 지키기 우리의 작은 노력이 큰 인식을 만듭니다.



## 농협 광주본부, 아침 먹기 캠페인

농협 광주본부는 최근 광주 관산구 첨단종합병원 근대식당에서 병원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캠페인에는 이현호 농협 광주본부장을 비롯해 송정농협, 하남농협, 첨단종합병원 임직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밥과 간편식 쌀국수 등 400인분을 제공하며 건강한 아침밥의 중요성과 쌀 소비 촉진 필요성을 함께 알리고, '밥심전심운동' 참여 결의를 다졌다.

이현호 농협 광주본부장은 "광주시가 선도 추진 중인 산업단지 근로자 조식지원과 농협의 아침밥 먹기 운동이 시너지를 형성해 근로자의 건강 증진은 물론 지역 농업과 상생하는 길"이라며 "농심전심운동과도 연계해 농업인이 생산한 건강한 먹거리를 나누며 시민과 농업인의 마음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협 광주본부는 지난해부터 광주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고품질 쌀을 기탁해 오고 있다. 앞으로도 산업단지, 학교, 공공기관 등 다양한 현장에서 '근로자 아침밥 먹기 운동'을 확대 추진하며 국정과 제 실현과 건강한 사회 분리기 조성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 동부경찰, 노인학대 예방 활동

광주 동부경찰은 8일 금남지하도상가에서 노인학대 근절을 위한 예방 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학대예방경찰관이 시민과 상인을 대상으로 리플링 등 홍보 물품을 전달하며 노인학대 신고 접수 절차, 나비세김(노인지킴이) 앱 사용법을 집중 안내했다.

시민들은 노인학대 신고 방법을 배우며 노인학대 예방에 나섰다.

김중호 동부경찰서장은 "점차 증가하는 노인 인구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노인학대 예방 활동으로 안전한 동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태웅 기자 sty1235@gwangnam.co.kr

# '난공불락' 삼중음성 유방암 치료 새지평 연다

### 민정준 화순전남대병원 교수팀, 글로벌 공동연구 착수 복자부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 선정...66억 연구비 지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은 민정준 교수 연구팀이 보건복지부 '2025년도 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의 글로벌 공동연구지원 과제에 최종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사업은 차세대 글로벌 의사과학자를 육성하고 국가 바이오 메디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핵심 연구 지원 프로그램이다.

글로벌 공동연구지원은 연간 15억원, 최장 4년 5개월 동안 약 66억원의 연구비를 지원한다.

연구팀은 사업을 통해 AI-합성생물학-광음향 분자영상 기반 스마트 박테리아 플랫폼(SAM)을 활용해 삼중음성 유방암을 정밀 표적하는 면역치료와 방사선 의약품 활용에 임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치료와 진단을 동시에 구현하는 테라노스틱스'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연구에는 화순전남대병원과 전남대 의대·자연과학대, 광주과학기술원(GIST)의 국내 최고

연구진과 신진 의사과학자가 대거 참여한다.

화순전남대병원에서는 민정준, 김형서, 이창호, 유수용, 강세령, 방현진, 문장배, 이수진, 나용민, 박형민 교수, 전남대에서는 홍영진, 최윤주, 신종오 교수, 광주과학기술원에서는 최진욱, 진미선 교수가 참여했다.

또 독일 뮌헨공대와 헬름홀츠 연구소의 세계적인 생체공학자 바실리스 지아크리스토스(Vasilis Ntziachristos) 교수팀이 합류해 광음향영상·바이오센서 기반 단백질 등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접목한다.

민정준 교수는 "AI와 생물정보학, 합성·시스템 생물학, 분자영상 기술을 융합한 스마트 박테리아 플랫폼은 기존 암 치료의 한계를 넘어서는 혁신이다"며 "세계적인 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젊은 의사과학자들과 함께 국제적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 전남도-바르게살기운동 전남협의회, 소통간담회 수해복구 성금 700만원 기탁 나눔·연대 실천

전남도 바르게살기운동 전남협의회는 8일 도청 서재필에서 도·시군 회장단이 함께하는 소통간담회를 열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협력방안과 협의회 역할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협의회 도·시군 회장단이 한 자리에 모여 김영록 도지사와 직접 소통하며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발전을 위해 협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전남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수해복구 성금 700만원을 전남도에 기탁하며 나눔과 연대의 뜻을 다졌다.

박주영 바르게살기운동 전남협의회회장은 "도민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바르게살기협의회가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바른 생활 실천운동을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지사는 "평소 지역 곳곳에서 따뜻한 나눔과 봉사로 앞장서주시는 협의회에 감사드린다"며 "전남도 역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더 행복한 전남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바르게살기운동 전남협의회는 '진실, 질서, 화합'의 3대 이념을 바탕으로 교통안전 캠페인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8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전남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도·시군 회장단 소통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교육, 친절도민 발굴, 나눔과 봉사활동 등을 통해 적인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안전문화 확산과 공동체 의식 고취에 앞장서고 있다. 어려움을 극복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담고 있다. 다. 이번 수해복구 성금 기탁 역시 협의회와의 지속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광주 서구는 환경부가 주관한 '2025년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지자체 성과평가'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국무총리상'

전년 대비 267.8t 감소 등 성과

폐기물을 전년 대비 267.8t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 음식물쓰레기 감량 실적 우수 아파트 및 다량배출사업장 선정, 초등학교 대상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포스터 공모전 등 자발적 감량 문화 확산을 위한 주민 참여형 정책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주민들의 성숙한 참여 의식과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함께 이뤄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 실현을 위해 선도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자원순환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자원순환관리사를 육성하고 18개 동에 설치된 자원순환가게를 통해 페트병, 종이팩, 캔, 폐전지 등 다양한 재활용품을 수거했다. 이에 총 1604명의 주민에게 2600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 '제1회 광주시연맹회장기 빙상대회' 성료 3개 종목 150명 참가...'행·재정적 지원에 최선'

광주 빙상계가 침체를 딛고 새롭게 출발했다.

8일 광주시체육회에 따르면 최근 연주시내빙상장에서 빙상 꿈나무들이 참가한 '제1회 광주시연맹회장기 생활체육 빙상대회'가 성황리에 열리며 광주 빙상의 제도약을 알렸다.

이 대회는 지난 4월 광주시빙상연맹 회장으로 취임한 박병석 회장이 낙후된 광주 빙상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자 약속한 대회 유치 및 개최의 일환으로 열린 대회다.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및 피겨스케이팅에 생활체육 학생 150명이 참가했다.

그동안 광주 빙상은 과거 집행부 임원 공석 등으로 장기간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올해 박병석 회장이 취임하며 분위기가 반전됐다. 시빙상연맹은 이번 대회를 시작으로 광주시장기 대회, 전국규모 대회 등 다양한 대회를 유치할 예정이다. 또 대한체육회 등 각종 공모사업에도 도전해 국비 유치에도 힘을 쏟겠다는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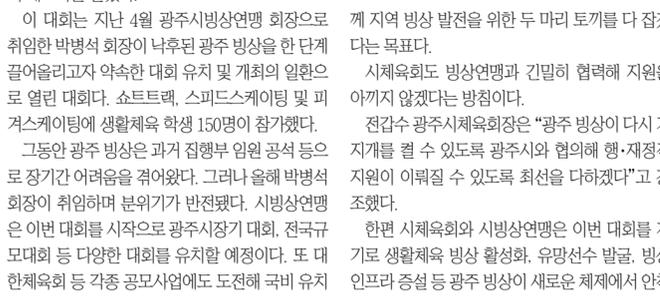
박병석 회장의 목표는 각 생활체육 빙상대회를 정례화해 동호인 저변을 확대하고 선수 육성 강화

지역 빙상 발전을 위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목표다.

시체육회도 빙상연맹과 긴밀히 협력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광주 빙상이 다시 지개를 켤 수 있도록 광주시와 협의회 행·재정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체육회와 시빙상연맹은 이번 대회를 계기로 생활체육 빙상 활성화, 유망선수 발굴, 빙상 인프라 증설 등 광주 빙상이 새로운 체제에서 안착할 수 있는 발전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광주 빙상계가 침체를 딛고 새롭게 출발했다. 8일 광주시체육회에 따르면 최근 연주시내빙상장에서 빙상 꿈나무들이 참가한 '제1회 광주시연맹회장기 생활체육 빙상대회'가 성황리에 열리며 광주 빙상의 제도약을 알렸다.



남구, 경로당 방문 구강검진·보건교육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 건강증진과 공직자들은 최근 힐스테이트백운아파트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의 구강질환 예방·관리법, 올바른 칫솔질 교육 등 구강검진 및 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사진제공=광주시 남구



동구, 자원순환의 날 기념 세미나 광주 동구(구청장 임택)는 8일 친환경자원순환센터에서 '협력과 공유로 잇는 광주' 자원순환 세미나를 열고 7개 기관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주제발표·사례발표를 진행했다. 사진제공=광주시 동구